

특집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시대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나아가자
한민족 여성들 "2022년 백두산에 함께 오르자"

칼럼
우리는 왜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하는가
청년토크 '우리도 어딘가에선 난민이다'
글로벌이슈포럼 '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장
2018 YWCA 'YANA콘서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018 YWCA가 뽑은 **賞** 제 22회
좋은 TV프로그램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오후2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맞은편)

구분	편수	
대상	1편	
부문상	성평등	1편
	생명	1편
	평화	1편
특별상	1편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편	

문의 ● 홍보출판팀 (02) 774-0230 ywcapr@hanmail.net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재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쓰레기종량제운동과 환경운동



1994년 4월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 발대식이 YWCA에서 열렸다.



YWCA 회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남용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YWCA는 쓰레기를 환경문제로 인식하지 않던 1980년대부터 쓰레기에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운동을 펼쳐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분리수거를 의무화했고, 1995년 전국 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버리는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는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했다. 2003년 분리배출표시제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만 해도 분리수거와 재활용운동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이 '분리수거의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시대를 앞선 YWCA의 활약이 있었다. YWCA는 1989년부터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고, '환경과 보건세미나'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을 위한 간담회' 등을 열었다.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유팩, 캔, 종이컵 등을 재생휴지로 교환해주는 자원활용 캠페인을 펼쳤다. 월요일과 수요일이면 한국YWCA회관 앞이 물건을 교환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포장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과대포장 상품전시회 등도 열었다.

1994년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때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연구조사, 홍보활동을 펼쳤다.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생활,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로 시민들의 실천을 도왔다. 수질, 대기,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매립과 소각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합성세제 정량쓰기와 폐건전지수거 캠페인,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 등을 벌였다. 쓰레기문제 해결에 재활용운동을 병행할 것도 강조했다.

YWCA 환경운동은 환경보존과 개선, 에너지절약, 유해식품 표시제, 환경호르몬 추방 등을 비롯해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 생활협동조합운동, EM(유용미생물)활용 등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이어졌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탈핵·생명운동으로 발전되어 왔다.

2018. 10 한국YWCA



표지이야기
9월 30일(일)부터 10월 2일(화)까지 지리산과 광주 일대에서 열린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에서 순례자들이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한반도기와 조각보를 펼치고 있다. (사진=여성신문)

2018년 11월 주요일정

- 11월 1일**
지속가능포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 11월 7일**
소비자 모니터링교육
- 11월 12일**
YWCA·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 11월 15일~16일**
돌봄직종 담당 실무자 워크숍
- 11월 16일**
뱅크잡스 드림쉽 콘서트
- 11월 21일~23일**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연수
- 11월 22일**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 11월 22일~23일**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

제54권 제8호 통권 552호

2018년 10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문미란·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색동조각보, 평화를 잇다 | 박영순
- 05 **말씀묵상** 사람을 찾습니다 | 김예식

특집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 06 ① **현장** 시대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나아가자 | 문윤희
- 08 ② **사진** 한민족 여성들 '평화의 한반도'를 외치다 | 편집실
- 10 ③ **좌담** 2022년 백두산에 함께 오르자 | 신미희
- 12 ④ **참가기** 나는 왜 한라산, 지리산을 올랐는가 | 박현미
- 14 **쟁점** 우리는 왜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하는가 | 손지민
- 16 **이슈** 한국 교회는 어쩌다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가 | 구권호
- 18 **강연** 핵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문과 한국 교회의 역할 | 김상은
- 20 **국제** 글로벌이슈포럼 '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은영
- 22 **청년토크** 우리도 어딘가에선 난민이다 | 대학·청년Y
- 24 **이달의 현장①** 2018 YWCA 'YANA콘서트' | 김민주
- 26 **이달의 현장②** YWCA 북부지역 회원대회 | 신미희
- 28 **이달의 현장③** YWCA 동부지역 회원대회 | 신미희
- 30 **이달의 현장④** 강릉YWCA 창립30주년 기념식 | 박금자
- 32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수원YWCA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2호 개설 | 손지민
-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 이윤숙
- 36 **2018 YWCA 전국증경회장 모임** | 김예은
- 37 **연합회 소식**
- 41 **회원YWCA 소식**

색동조각보, 평화 있다



박영순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찬 이 구호는 YWCA가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말겠다는 준엄한 결의를 보여주는 6년간의 평화순례이다. 지난해 10월 제주도 한라산을 시작으로, 두 번째인 올해는 지리산에서 진행되었다. 지리산 순례에 참여한 250여명이 색동조각보를 목에 두르고 색동깃발을 흔들며 힘차게 걷는 모습은 평화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더불어 넘치는 활력으로 우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색동조각보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으려는 생각은 분단 70주년을 맞은 2015년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여성운동가들이 YWCA를 비롯한 여성평화운동 단체와 함께 비무장지대 DMZ에서 평화순례를 하자는 WCD(Women Cross DMZ)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평화를 상징하는 대형조각보와 순례자들의 흰색 의상에 걸칠 스카프 디자인을 의뢰받았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평화의 상징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색동과 조각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고, 그 기쁨으로 밤새우며 디자인을 완성했다. 전국 52개 회원YWCA와 부속시설에서 700여명이 참여해 1,000개의 천 조각을 이어 대형조각보를 완성하기까지 시간은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숨가쁜 과정이었다.

색동은 오방색과 오간색이 어우러진 색띠로 전통적으로 첫 돌을 맞는 아기들의 색동저고리나 결혼하는 신부의 활옷을 통해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사용해 왔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위를 뜻하는 청, 백, 적, 흑, 황의 오정색과 각 방위의 사이를 뜻하는 하늘

색, 분홍색, 자주색, 겨자색, 녹색의 오간색을 활용해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색동을 만들어냈다. 색동에서 정색들은 대비가 심하여 조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공통 요소를 지닌 간색을 적절히 배치하면 다채로움의 조화를 이룬다. 유사한 색들보다 색동의 서로 다른 다채로움의 조화감이 균형 잡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 조각을 모아 한땀 한땀 바느질로 이어붙이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자기이다. 우리나라 전통 여성문화를 대표하는 조각보는 크기와 색이 다른 천 조각을 이리저리 늘어 놓아보면서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 더 나올까 고민한 결과로써 오늘날에는 훌륭한 예술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천 조각을 이어 붙여 하나로 만드는 조각보는 바느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은 어려워도 정도가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뜻으로 인내와 성실을 요하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과 같다.

평화는 각기 다른 개체가 모여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뜻하며, 사전에도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평화라는 개념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전제되어 있음을 볼 때 평화를 얻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포용과 화합의 시간이 필요하다. 색동조각보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위해 서로의 다툼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인내와 성실로 완성되는 과정의 의미를 새겨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다채로움의 에너지를 품은 평화의 색동조각보가 머지않아 금강산과 백두산에서 휘날릴 감동의 날을 기대한다. 

사람을 찾습니다



김예식
예심교회 담임목사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타산과 물질에 얽매어 있고 명예와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 갈등을 빚고 상대방의 약점을 헤집는 갈등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의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대를 바꿔놓을 참다운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손을 붙잡고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인광고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치가는 ‘탁월한 정치가 있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가는 ‘능력 있는 수입의 창출로 국가는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전략가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바른 전략을 세우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인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세상을 참다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정말로 이끌어갈 것은 ‘당신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몇 사람 안 되는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세상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나에게서 죄성(罪性)을 찾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바로 ‘실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성을 교묘하게 거부하며 신앙 생활을 숨어서 하는 ‘익명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명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옳은 말, 정의로운 주장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실명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더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세상을 바꿔낼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은 샘물이 풍풍 솟아 탁한 호수 전체를 바꿔내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변화되어 실명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광야의 사막에 뜨거운 햇볕을 버티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식당나무’입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앙상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입니다. 목재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식당나무’로 지성소 깊은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당나무와 같이 세속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실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 한민족 YWCA 여성평화순례 참가자들이 10월 1일(수) 천왕봉을 오르면서 색동 조각보를 펼치고 있다.

문운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2017년 한라산에서 100주년을 향한 평화순례의 첫 걸음을 댄 YWCA 여성평화순례단이 올해는 지리산과 광주에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다졌다. 9월 30일(일)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고단, 천왕봉 등 지리산 일대와 광주5.18민주묘지, 소심당조아라기념관에서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YWCA연합회와 광주YWCA가 함께 주관했다.

왜 지리산과 광주를 찾았는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열리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 무르익는 가운데 YWCA 여성평화순례는 올해도 이어졌다. 한국YWCA연합회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지난해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성평화순례는 해마다 지리산, 태백산(금강산), 설악산(묘향산), 금강산(칠보산)을 오르며 '통일씨앗'을 뿌리고 100주년이 되는 2022년 백두산 정상에 남북한과 해외동포 여성들이 함께 오르는 평화운동 프로젝트다.

2018년 여성평화순례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 이념갈등이 빚은 최대 비극의 현장에서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지리산과 광주에서 열렸다. 올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확산을 위해 한국과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중국, 미국 재외동포까지 한민족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로 확대됐다.

특히 '달빛동행'(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연대)이라 불리는 동서화합을 위해 대구YWCA와 광주YWCA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한껏 키웠다. 회원YWCA에서는 32곳(남양주, 성남, 수원, 안산, 안양, 하남, 거제, 대구, 부산, 사천, 양산, 울산, 진주, 포항, 동해, 서울, 속초, 인천, 광양, 광주, 군산, 목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논산, 대전, 서천, 제천, 청주, 충주)에서 참가했다.

먼저 26명의 천왕봉 순례팀이 9월 30일(일) 지리산 빨치산토벌전시관을 탐방하며 여성평화순례의 막을 올렸다. 지리산은 빨치산과 군·경 토벌대의 전투 등 좌우 이념대립의 모습이 가장 압축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지금은 시대적 상흔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생명의 산, 살림의 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민족이 빨치산과 토벌대

로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다.

평화는 함께 가는 것

전국과 해외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며 10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천왕봉 등정, 노고산 등반, 특별강연, 평화축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소심당조아라기념관 탐방 등이 이어졌다. 10월 1일(월) 천왕봉 순례팀은 아침 일찍 출발해 지리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꼬박 6시간의 등반길에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해발 1915.4m 천왕봉을 완주했다. 순례자들은 "힘들 때마다 순서를 바꿔가며 모두 정상에 오른 것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아닐까"라며 완주소감을 밝혔다.

노고단 순례팀은 천왕봉보다는 낮은 코스로 3시간 동안 등반을 진행했다. 성삼재주차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노고단으로 향하던 길에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졌다. 노고단 정상을 15분 앞둔 대피소에 이르렀을 때는 짙은 안개와 함께 세찬 비바람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의 등반이 힘든 상황에서 순례팀은 노고단 정상 대신 대피소 앞에서 평화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비바람과 안개를 헤치고 하산했다.

천왕봉 순례팀과 노고산 순례팀은 산을 내려와 더케이 지리산가족호텔로 모였다. 특별강연으로 저녁행사가 이어졌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으로 평양에 다녀온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평화·통일시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성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순례의 뜻을 나누는 문화행사인 평화축제도 펼쳐졌다. 천왕봉과 노고산 순례현




2018 한민족 YWCA 여성평화순례 참가자들이 10월 1일(수) 천왕봉을 오르면서 색동 조각보를 펼치고 있다.

장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고, 평화순례를 축하하는 떡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광주YWCA 아이리스선교단의 부채춤과 모듬북 공연, 강명진 전자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도 흥을 돋았다.

10월 2일(화) 참가자들은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과 광주YWCA 조아라 선생의 삶을 배우는 '역사 순례길'에 나섰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정신을 기린 순례자들은 '2018 YWCA 여성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음 순례를 주관할 서울YWCA에 평화의 조각보를 전달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조아라 전 광주YWCA 회장의 생전 활동기록을 모아놓은 소심당조아라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에서 순례자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지휘본부로 사용되며 구심 역할을 했던 광주YWCA 역사와 독립운동부터 시작해 여성운동과 민주화·인권운동에 헌신한 조아라 회장의 일생을 되돌아봤다.

YWCA는 올해 선언문에서 "남북여성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오랜 고통과 상처의 역사를 치유와 희망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태백산으로 예정된 2019 여성평화순례는 북측과 협의가 성사될 경우 금강산에서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와 광주YWCA는 9월 30일(일) 사진행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노고단, 천왕봉 등 지리산 일대와 광주5.18민주묘지, 소심당조아라기념관에서 2018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을 진행했다. 중국, 미국 재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전국 32개 YWCA 회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2박3일간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①참가자들이 평화축제에서 색동 조각보를 펼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평화순례자들 ③지리산 천왕봉에서 평화퍼포먼스로 YWCA 2018 여성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④노고단에서 만난 YWCA 청년들과 회원 ⑤노고단팀이 지리산 숲길을 걷고 있다. ⑥평화축제에서 광주YWCA 아이리스선교단이 모듬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⑦광주YWCA가 2019 여성평화순례를 주관할 서울YWCA에 대형 조각보를 전달하고 있다. ⑧참가자들이 광주5.18민주묘지 참배를 하고 있다.



2022년 백두산에 함께 오르자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엠에스더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대표, 허미란 연변민들레교류협회장, 민금복 전 퀸즈YWCA 회장, 정지운 광주YWCA 부회장(사진 왼쪽부터)이 '평화'를 외치고 있다.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지리산과 광주에서 열린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에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확산을 위해 한국과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중국, 미국 재외동포까지 한민족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로 확대됐다. 10월 1일(월) 저녁 평화축제가 끝난 밤늦은 시각, 한민족 여성을 대표한 참가자 5명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있는 지금 여성평화순례 의미와 앞으로 한민족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와 지리산에 와서 가슴 벅차다”

“어떤 일도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남북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여성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걷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분명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 지역을 넘어 한민족 여성 250여명이 참가한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그중 탈북민으로 청년통일문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엠에스더 유니시드 통일봉사단 대표, 중국 연변에서 한민족 여성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허미란 연변민들레교류협회 회장, 미국 한인 이민자들을 지원하며 한인사회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는 퀸즈YWCA 민금복 전 회장, 이번 행사를 주관한 광주YWCA 정지운 부회장과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이 10월 1일(월) 저녁 얼굴을 마주했다.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 등반을 마친 뒤 밤늦게까지 특강과 문화행사에 참여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서로에 대한 격려와 감동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근 진일보하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함께 환영하면서 여성들이 오랫동안 펼쳐온 노력이 이런 결실을 맺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약속했다.

1994년(중국 연변), 1996년(미국 뉴욕), 2013년(중국 연변) 각각 이미 한민족 여성대회를 개최했던 중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외에서 여는 한민족 여성대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만남과 소통, 가장 빠른 평화의 길

허미란 연변민들레협회 회장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라산편 여성평화순례에 참여하면서 그 뜻에 크게 감동받아 올해는 더 많은 회원을 모시고 왔다”고 말을 꺼냈다.

허 회장은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모두 가봤는데 지리산만 오지 못해 무척 아쉽다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광주와 지리산을 오게 되어 가슴 벅차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민금복 퀸즈YWCA 전 회장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화정신을 퍼뜨린다면 한반도에 평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정부는 물론이고 오늘처럼 재외동포, 한국, 북한의 여성들이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어디든 모두 가슴에 박히는 좋은 곳이라며 부모님 고향이 원산, 평양이라서 특별히 북쪽 강원도 삼방약수와 원산 명사십리를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의 엠에스더 대표는 “북한에 살 때부터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광주를 알고 있어서 꼭 와보고 싶었다”며 광주에 오게 된 감격부터 털어냈다. 엠 대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먼저 마음의 통일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니시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는 걸 보면서 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오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여성평화순례를 주관한 광주YWCA 정지운 부회장은 “천왕봉에 오르기 전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을 다녀왔다. 지난해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도 느꼈지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과 탈북민 청년여성 엠에스더 대표가 2017 여성평화순례 한라산편 사진을 보고 있다.



순례단이 광주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조아라 선생, 박용준 열사 등 YWCA 민주인사를 참배하고 있다.

만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이념갈등의 비극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역사가 마음이 아팠다. 이제는 남북이 대립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열고 그 기세를 몰아 내년엔 금강산에서 여기 있는 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기대했다.

2022년 백두산 여정까지 여성평화순례를 주관하게 될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 손을 잡았던 모습을 언급하면서 한민족 여성들이 2022년엔 백두산에 꼭 함께 오르자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때론 험난할 수 있지만 우리 여성들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에 동참한다면 그 바람은 이뤄질 것이니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이날 자리를 마쳤다. 



천왕봉 순례팀 26명이 지리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왕봉 정상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박현미
대구YWCA 간사

대구YWCA 회장단을 비롯한 이사위원과 실무자 15명은 9월 30일(일)부터 10월 2일(화)까지 지리산과 광주 일대에서 열린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에 대구YWCA와 광주YWCA의 지역교류 프로그램인 ‘달빛동행’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한라산 백록담에 이어 올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오른 대구YWCA 활동가의 참가기를 신는다.

대구와 광주, 지역을 넘다

지난해 3월 ‘2017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편’ 안내문을 받았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평화포럼을 참석하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야 하는 일정에 대구YWCA에서는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의논하던 중 평소 등산을 좋아하던 내게 선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등산을 좋아하지만 가보지 못했던 ‘한라산 정상’에 오른다는 들뜬 마음으로 평화포럼에 열심히 참여했다. 다섯 번의 평화포럼과 준비를 거쳐 10월 27일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다. 대구YWCA 활동가들에게 참가소감을 공유하면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년엔 다른 활동가들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눴다. 그리고 내년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한라산에서 평화를 꿈꾼 것처럼 내년에도 지리산에 올라 ‘꼭 평화씨앗을 심고 오리라’ 다짐했다.

나의 바람이 통했을까. 대구YWCA가 창립95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고민하던 중 2017년부터 펼쳐온 대구YWCA와 광주YWCA의 교류프로그램인 ‘달빛동행’을 올

해도 진행하기로 했다.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에서 비롯된 ‘달빛동행’은 영호남 지역의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다. 지난해엔 대구YWCA 이사·위원 연수로 광주YWCA 창립95주년에 참석해 축하했고,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선생의 뜻을 기린 소심당조아라기념관을 방문해 광주YWCA 역사를 돌아봤다. 올해는 광주YWCA가 대구YWCA 창립95주년에 함께했다.

특히 이번엔 한국YWCA 100주년 비전을 함께 꿈꾸고 동행하는 시간을 위해 광주YWCA가 주관한 ‘2018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에 대구YWCA 이사·위원·실무활동가가 모두 참여하는 ‘달빛동행’으로 동서화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내년 한라산에 이어 지리산을 오르는 또 한번의 감사한 기회였다.

서로를 위한 배려에서 평화를 보다

천왕봉을 오르기 전날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을 찾았다. 전시관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책으로만 배운 윗세대가 경험한 아픈 역사의 현상이 눈앞에 펼

쳐져 충격이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동상들은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고, 팔다리를 잃은 빨치산의 모습이었다. 그 적나라한 모습에서 동족상잔의 비극과 아픔을 느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6.25 한국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던 경계선 ‘38선’은 국토만 갈라놓은 게 아니었다. 이념갈등과 대립으로 서울, 대구, 제주, 여수, 순천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다. 그 중 한 곳이 지리산 일대다.

이 곳에서 벌어진 빨치산과 토벌대의 전투과정은 ‘작은 전쟁’이 되어 한국전쟁의 전초전을 형성했다.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듯 형형색색의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평화를 외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아침 일찍 오르는 지리산은 평화로웠다. 하늘이 닿을 듯한 울창한 산에서 절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이 흥얼흥얼 나왔다(찬송가 412장 평화로다). 산악 안전요원을 포함해 천왕봉을 오르는 33인이 된 우리는 속도가 모두 달랐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발맞춰 걸었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천천히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속도가 더딘 사람들은 먼저 앞선 간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 ‘만약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갔다면 끝까지 오를 수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앞에서 박현미 대구YWCA 간사(맨 왼쪽)를 비롯한 천왕봉 순례팀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있었을까,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오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평화가 오지 않나 생각해봤다.

천왕봉 정상에서 칼같은 찬바람 속에 평화기도문을 읽으며 평화씨앗을 심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들어드시리라고 확신했다. 우리 시간을 100년으로 보았을 때 100년 안에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2000년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이 순간은 점과 같이 작을 것이다.

그러나 점과 같은 이 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점이 모여 하나의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굳게 믿기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YWCA 이름으로 계속 평화운동을 위해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평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되었다. 남과 북을 말하기 이전에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역자들에게 이해와 배려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낸다면 남북이 서로 이해하는 때도 곧 오지 않을까.

두 번째 여성평화순례 여정을 마쳤다. 처음 한라산에서는 오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번 지리산에서는 서로를 위해 걷는 발걸음에서 평화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의 아픔 뒤에 있는 평화를 깨달으면서 감사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을 안고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까지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한 동행을 함께하고 싶다. 



대구YWCA 회장단·이사·위원과 실무활동가들이 노고단 입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10월 6일(토) 서울 혜화역에서 6만명(주최측 추산)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올해 5월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 편파수사 규탄으로 촉발된 혜화역 집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최근 여성연예인 불법촬영 협박사건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항의를 뜻하는 붉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췄다. (출처 : 불편한 용기)

여성이 불안한 세상, 이게 나라냐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10월 6일 금요일, 서울 혜화역에서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를 위해 붉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6만명의 여성들이 혜화역 일대를 가득 채웠다. 지난 5월부터 불법촬영과 편파수사·편파판결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왜 광장에 나와 소리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부터 친구가 SNS로 공유한 기사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였다. 급하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내용은 더 충격이었다. 관련기사에서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 협박에 관한 이야기는 가십인 양 다루어졌다. 댓글에는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심지어 동영상을 공유해달라는 등 피해자를 향한 2

차 가해가 가득했다.

나는 3년 전 인터넷에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을 단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불법 성적촬영물 유포)가 판을 치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서 잡지 못한다고 했고, 불법촬영과 유포를 한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됐다.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깨닫고 난 후 일상은 아주 불편해졌다. 나도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렸고,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휴지를 말아 구멍을 막았다. 짧은 옷을 입은 날에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물을 찍힌 것은 아

손지민

한국YWCA연합회 청년기자단 4기 대표

닐까 걱정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게시물에 익숙한 장소가 나올까봐 살펴보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여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불법촬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심각한 인격적 고통과 사회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은 피해를 가볍게 치부하고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 불법촬영물이 소비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불법촬영이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여성의 분노에 대답하라

불법촬영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법적, 제도적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헤어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 엄벌’이라는 표현이 뒤따랐다. 불법촬영 범죄 대부분은 집행유예, 재산형(벌금),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인격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미비하다.

사법부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기까지 한다. 불법촬영물이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등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불법촬영이 중범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부의 법률 강화와 더불어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다.

짧은 글로는 다 짚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여성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중 여성화장실 문과 벽의 구멍을 휴지로 막아냈다.




6월 9일(토)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석한 손지민 청년이 피켓을 들고 있다.

당연한 요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달라지지 않는 세상에 무력감을 느낀다.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 억울하다. 그렇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나’, 그리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불편한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변화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혜화역과 광화문에 모여 다섯 차례의 붉은 물결을 만들어냈다.

일부 극단적인 표현이 오히려 성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더 과격하고, 그 피해는 더 처절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했다. 여성들이 ‘미러링’이란 방식으로 여성혐오가 가득한 사회를 비추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범죄가 아닌 여성에게 향하고 있다. “비판하러거든 착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외침을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표현을 비난하기 이전에 문제의 본질과 맥락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여성들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편해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은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 자유롭게 당연한 일상을 얻기 위해 소리칠 것이다. 내가 ‘혜화역 시위’로 불리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이유다. 



한국 교회는 어쩌다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가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가 10월 8일(월) 서울 공덕동 <한겨레> 앞에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보도에 반발하며 신문폐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스앤조이)

구권호

<뉴스앤조이> 편집국장

최근 <한겨레>가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며 북한선교를 표방해온 ‘에스더기도운동본부’를 발원지로 지목하자 일부 기독교 세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기독교에 관한 의혹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는 2016년부터 SNS 중심의 가짜뉴스, 특히 개신교발 가짜뉴스 뿌리를 계속 추적해왔다. <뉴스앤조이>는 어떻게 가짜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한국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기 위해 취재기를 쓴다.

사실검증에 돌아온 건 사상검증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뉴스앤조이>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신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주장들에 대해 ‘사실검증’한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사상검증’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검증하는 시도조차 불순하게 보는 현상, 개신교인이라면 당연히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반동성애’와 ‘반이슬람’은 교회에서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줄 알면서, 우리는 왜 이런 기사를 내보내 욕을 먹는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와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기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주장들이 사실이기라도 했다면, 지금처럼 우리를 비롯한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지도 않았겠지요.

안타깝게도 교계 반동성애 단체·인사들의 주장을 취재해 보면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요즘 <한겨레>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겨레 가짜뉴스피해자모임’이 내놓은 해명자료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중 100% 거짓은 별로 없습니다. 90% 이상이 진실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0%의 거짓을 섞으면 그 주장은 결과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그들이 출처로 명시한 자료를 추적해보면

이같은 형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을 근거로 논지를 펼쳐 나가다가도 결과를 살짝 비틀니다.

일례로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에이즈를 없애려면 동성애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교계 지도자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HIV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 간 성관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HIV바이러스 감염’과 ‘에이즈 확진’은 다릅니다. 여성 동성애자 간 성관계를 통해서는 HIV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특히 에이즈환자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경우 주된 감염경로는 ‘모자(母子)감염’입니다.

또한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자를 낙인찍는 사회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견해입니다. HIV 감염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서 검진받고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를 없애기 위해 동성애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음지로 숨어둘게 해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가짜뉴스, 6배 더 빨리 퍼진다

가짜뉴스 사태 전부터 <뉴스앤조이>는 개신교발 루머가 돌 때마다 이를 검증해왔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족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증거와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소문을 검증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순간도 합법화한다’는 주장을 체크하기 위해 번역기를 돌려가며 각 나라의 순간 관련 법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코란에는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나온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태원에서 코란 해설집을 구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간 이런 가짜뉴스들이 교회단체 채팅방과 개신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현실을 보도하긴 했지만,

진원지가 어디인지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가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이용희 대표)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추측하기만 했던 가짜뉴스의 시작점이 에스더로 대표되는 보수 개신교 진영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충격적인 보도에도 당사자들만 아랑곳하지 않는 듯합니다.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가짜뉴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반동성애 집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현혈도 그냥 수혈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tvN <알쓸신잡 시즌3>에 나온 가짜뉴스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대중이 그렇게 믿고 싶어할 때 빨리 퍼진다”고 말했고, 김영하 작가는 “루머는 적어도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개신교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개신교인들은 동성애, 이슬람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한국 교회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속력’을 다지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가짜뉴스 사태로 적어도 일부 개신교인들이 동성애자와 무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 혐오의 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21세기 한국 개신교.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요한복음 8:44)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뉴스에 누구보다 민감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교회 안에 만연한 허위정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도그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8:32) 



배현주 부산장신대 교수가 '그리스도인,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 포럼에서 강의하고 있다.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운동 간사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39개 기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핵그런)는 9월 28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그리스도인, 핵없는 세상을 향하여' 포럼을 열었다. WCC(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인 배현주 부산장신대 교수의 주제 강연 '핵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문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요약해 실는다.

신의 권능을 넘보는 인간의 욕망, '핵'

W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을 혹독하게 경험한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1948년 창설됐다. 제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WCC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War is Contrary to the Will of GOD)는 기조 아래 핵무기를 생산·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으로 여겼다. 이처럼 WCC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쟁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고, 각종 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 폐기 운동을 적극 주도해왔다.

WCC의 주된 관심은 핵무기였다. 2010년 화천에서 열린 국제평화대회 성명도 핵무기 반대가 주제였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럼에도 2014년 WCC 중앙위원회가 핵무기뿐 아니라 핵발전소 문제까지 다루는 성명을 채택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동북아시아 핵발전소 현실을 운동과제로 삼은 지역교회들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WCC의 성실한 응답, 지속적으로 펼쳐온 핵반대 운동 덕분에

2014년 WCC 중앙위원회 성명 채택이 가능했다. 한국, 일본, 미국의 교회와 에큐메니컬 평화운동, 탈핵네트워킹이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성명은 '세계의 선도, 지역의 응답'만이 아니라 '지역의 선도, 세계의 응답'이 함께 작용한 모델이라 더 의미가 깊다.

올해 남북통일을 향한 정치적 행보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염원한 많은 이들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인 듯 하여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는 통곡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변화와 함께 이를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영적, 정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생명, 평화, 정의(시장정의, 생태정의, 공동체 정의, 국가간의 정의) 등 모든 이슈가 한 곳으로 수렴되는 것이 핵의 문제이다.

비핵화나 탈핵운동의 대척점에 있는 '핵' 정권과 '핵' 산업은 현대문명의 기술공학과 세속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 인간 본성에 스며들어 있는 독점권력 탐욕과 이기적 편의주의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다양한 요소를 먹이로 해서 몸을 키운 공룡 같은 존재다. 핵

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술공학체제와 대량살생의 군사무기이다. 또한 무한성장을 통해 지정학적 패권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융합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핵은 하나님 없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절대권능에 대한 욕망이다.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신 모든 지구생명체를 멸절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무엇보다도 교회가 공통의 욕망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교회의 탈핵운동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성장과 성공 제일주의의 가치관으로 달려간다면 피폭자와 희생자의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보자는 핵그런의 기본 입장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의 회개운동이 앞서야 하며 나쁜 신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나쁜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능력, 개인의 죄 중시, 기적적인 구원 맹신에 몰두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제자직을 무산시켜 버리는 신학을 말한다.

이런 나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 부정의함과 평화를 만드는 일에 침묵하게 하고 손과 발을 묶는다. 이제는 저항과 협치의 기준이 성찰되어야 한다. 핵그런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갱신운동의 불씨다. 탈핵이라는 비전 자체가 심오한 예언자적 상상력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인 이진형 목사, 배현주 교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 이택규 목사(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갱신 과제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역사 과제 앞에서 있는 한국 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과제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과제의 유의미한 연결성을 이해하는 신앙인들과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교회운동은 대중화, 풀뿌리 공동체의 의식화를 포함한다. 교회력에 따른 예배는 중요한 교육도구이다. 3월 탈핵주일, 6월 환경주일과 함께 9~10월의 창조절을 지켜야 한다. 교회교육은 다음 세대 활동가를 기를 수 있는 통로이다.

올해 폭염으로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가 예수님, 부처님과 함께 인류의 구원자로 등극했다는 유머가 회자되며 반원전 정서가 둔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핵운동은 기후붕괴시대 에너지문제와 자연·생태 환경운동 등 더욱 입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를 설명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탈핵 비전이 사람들의 가슴에 동지를 틀 수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새로운 영성과 가치관에 입각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들과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관계의 힘을 맞보아야 할 것이다.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가 '지역의 선도, 세계의 응답' 모델의 동력을 보존하면서 한국과 세계를 위한 21세기형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WCA



'그리스도인, 핵없는 세상을 향하여'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있는 아동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김은영

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 간사

한국 난민지위 인정율 2.1%

올해 5월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며 난민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해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난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 통계만 봐도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난민신청자는 3만 2,733명인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2.1%)에 불과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0월 17일 예멘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난민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없었다.

한국에는 현재 다양한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나 합의 없이 난민을 향한 혐오, 분노, 경멸의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1차 YWCA 글로벌 이슈포럼에 이어 2차 이슈포럼에서도 난민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책 <모멸감> 저자인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혐오와 배척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예멘 선교사로 활동한 박준범 엠

브릿지 대표가 '예멘 난민과 한국기독교의 이슬람 해석의 문제들'을 각각 발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혐오는 '영혼의 살인'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70만명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 '무슬림이 늘어나면 범죄와 강간율이 높아진다'는 가짜뉴스와 선동이 이어지면서 난민반대 집회는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전혀 다른 문화권인 고국을 떠나온 절박한 난민들로 인해 그간 지켜온 우리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이 혐오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 표현은 인간이 타인에게 가하는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할 만큼 치명적이다. 존재 가치를 근원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는 물리적인 폭력과 달리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 쉽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혐오'란 단어를 살펴보면 혐(嫌)은 '싫어한다', 오(惡)는 '미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둘의 뜻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벌레나 뱀을 무서워하며 기피하지만 증오하지는 않는다. '싫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반응에 머물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한국 사회 속 혐오와 배척의 마음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지만, '미워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 갈 가능성이 높다. 혐오는 싫음과 미움의 복합체로 적개심, 우월감, 두려움 등의 감정이 섞여 있다.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혐오에는 이런 감정이 혼재돼 있다. 특히 혐오감은 공포감과 강한 친화력을 갖는데 회피, 외면, 격리, 비아냥, 멸시, 조롱, 모욕, 악마화, 적대시, 비난, 공격, 정죄, 저주 등이 합성되면 이른바 '극혐'이 되는 것이다. 혐오 수위가 점점 높아져 극단에 이르는 현상을 말하는 신조어 '극혐'은 이제 널리 쓰일 정도다. 누군가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극혐이야'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과장일 수 있지만 언어와 마음은 상호순환적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은 증폭된다. 특정부류를 싸잡아 폄훼하고 저주하는 일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증가와 세금부담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서울 도심에서 몇 차례 난민반대 집회가 열린 것도 그런 사례다.

난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민주화 덕분에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 경제성장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졌고, 정보혁명으로 엄청난 검색과 통신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삶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과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직면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짓누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뭉치면서 부질없는 경계를 치고




박준범 엠브릿지 대표가 제주 예멘 난민 긴급구호사업 '사마리아행동'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장벽을 쌓을 때 근거 없는 혐오 감정이 싹트고 퍼진다.

그러나 낮은 것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환대한다면 혐오를 극복할 수 있다. 타인에게 열린 마음으로 생명의 기운을 북돋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예멘 난민들은 전쟁과 고문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를 택했다. 한국엔 유럽처럼 난민캠프가 없을 뿐더러 난민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도 부족하다.

한국 사회의 미움과 견제를 견디며 살아가는 예멘 난민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주목하는 제주 기독교단체 '사마리아행동'이 있다. '사마리아행동'은 성경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되었음이니라'를 바탕으로 예멘 난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자 사랑과 돌봄의 대상으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통합형 숙소를 설치해 한국어와 문화 교육, 환자돌봄, 난민 정신지지, 힐링캠프 등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 전문 이일 변호사(공익법인 어필)는 1차 이슈포럼에서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난민을 무조건 혐오하거나 배척할 게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과 상생을 위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 진단 그리고 해법이 나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올해 여름 제주도에 예멘 난민 561명이 입국하면서 난민이슈로 떠들썩했다.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곳곳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YWCA 청년들은 난민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9월 15일(토) 한국YWCA회관 청년공간인 'Y-space'에서 7명의 청년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멘 난민이 잠재적 범죄자?

불펜 ▶ SNS에서 난민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무서워졌어.

허니 ▶ 한국은 난민을 위한 제도가 잘 안되어 있는데 세계에서는 한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오해한대.

종이 ▶ 지금 해주는 거라곤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주는 것뿐이야. 물으로 나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조차 싫어하지.

오예 ▶ 학교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많이 됐어. 예멘 난민들이 여성대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무섭다는 반응이 많아.

불펜 ▶ 맞아. 난민수용 반대 청원에 동참하라는 말까지 들었어.

오예 ▶ 지난해 콩고 난민을 만났어. 한국에 살며 나와 같은 공감대를 가졌더라. 직접 이야기를 나누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졌어.

종이 ▶ 청년들이 난민이슈를 이야기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

물통 ▶ 근데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날까'란 말처럼 난민을 수용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버터 ▶ 난민이 나빠서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절한 상황인 사람들이 편의점을 털고,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물통 ▶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건 이상주의 아니야?

오예 ▶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

불펜 ▶ 한국은 난민수용국이야.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하면 의료, 교육, 최소한의 주거를 제공해야 돼. 그럼 처절함에 의한 범죄는 없어질 거야.

종이 ▶ 난 모르겠어. 처음부터 난민에 대한 안 좋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혼란스러워.

난민에게 일자리를 뺏긴다?

물통 ▶ 한국은 청년문제도 심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아. 국민도 혜택을 못 받는데 난민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명함 ▶ 국내 문제도 엄청난데 난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어?

불펜 ▶ 우리나라도 과거 난민인 적이 많잖아. 제주4.3 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중국에서 고려인, 조선족으로 살아야 했던 역사가 있어. 그때 우리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은 기억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마음 아파.

오예 ▶ 이젠 우리도 세계시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걸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종이 ▶ 아직도 아시아 사람들은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도 어딘가에선 사회적 약자가 되잖아.

불펜 ▶ 차별의 피해자일 땐 부당하고, 가해자일 때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2015년 망명하다 죽은 3살짜리 시리아 아이 시체를 보고 안타까워하던 우리는 어디로 간 거야?

오예 ▶ 정말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물통 ▶ 제주도에 묶여 있던 난민들에게 출도허가가 떨어져 내륙으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두렵기도 해.

명함 ▶ 일자리가 제일 걱정이야. 난민이 저임금 노동자가 되면 우리 임금도 떨어지지 않을까?

오예 ▶ 이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난민 500명이 들어온다고 시스템이 바뀌진 않아.

명함 ▶ 유럽은 2015년부터 난민을 엄청나게 받았지. 그러다 문제가 하나둘 터졌고.

물통 ▶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한 것도 결국 난민 때문이지 않아?

오예 ▶ 그건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논리와 같아. 노동문제와 난민문제를 어떤 잣대

로 비교하는 거야?

종이 ▶ 유럽이 그랬다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어딴어?

버터 ▶ 이 문제로 다투는 게 무슨 소용이야. 국가가 일자리, 난민문제 둘 다 잘 해결해야지.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거짓말

불펜 ▶ 난민은 우리 사회 모든 불안을 대리하는 것 같아. 난민이 오기 전에도 한국에는 청년실업, 성폭력 문제가 엄청났어. 근데 난민이 오니깐 모든 것에 그들 탓을 하고 있잖아?

버터 ▶ 난민문제에만 유독 예민한 게 웃겨.

종이 ▶ 난민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그런데 이미 일상화된 한국 남성들의 여성차별, 성폭력이 더 무서워.

물통 ▶ 소문이 사실인 경우도 있잖아. 실제 유럽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해.

명함 ▶ 예멘 난민들은 이슬람이야. 우리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면 어떡해?

오예 ▶ 그건 너무 억지야. 한국은 다종교 국가야.

허니 ▶ 고작 몇 백 명이 들어온다고 한국이 이슬람화된다고? 말도 안돼.

불펜 ▶ 난민수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일민족주의와 이슬람포비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

종이 ▶ 백인들이 한국에서 살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동남아시아나 이슬람 사람들은 혐오하잖아.

오예 ▶ 차별이 곧 혐오야.

버터 ▶ 성경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난민을 더 혐오하는 것 같아.

종이 ▶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난민을 포용해야 해.

불펜 ▶ 격공!(격한 공감) 예수님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그들과 함께하셨을 거야.



2018 한국YWCA 후원콘서트인 'YANA콘서트'가 동행을 주제로 10월 16일(화)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렸다. YWCA 회원과 활동가, 후원자,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주

청년기자단 3기 ·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즐거움으로 함께 '동행'하다

10월 16일(화)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YWCA 후원을 위한 'YANA콘서트'가 열렸다. “당신은 혼자 아 아닙니다”(You Are Not Alone)의 영문 약자인 'YANA'는 여성, 청년·청소년, 아동,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YWCA 정신을 강조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희망나눔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YANA콘서트'는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철환 아주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동행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와 가수 노사연이 무대를 꾸몄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 유관순기념관 로비는 전국 각지에서 온 YWCA 회원들과 콘서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며 근황을 묻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들은 로비 한편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YANA'를 외치며 YWCA 활동

과 YANA콘서트를 응원했다.

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자주 보던 친근한 컴퓨터 화면이 영상에 나왔다. 마우스 커서가 바탕화면 속 폴더를 클릭하자 YWCA의 다양한 활동과 지난해 콘서트 모습이 나왔다. 이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등장했다. YWCA 활동가가 단체방에 “후원자, 시민활동가, 시민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대화 상대가 동행이라는 주제를 제안했다. 이번 주제가 선정된 배경을 독특한 형식으로 보여준 영상에 대해 주철환 교수는 “YWCA의 Y(Young)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다”고 평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다

영상이 끝나고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가 등장했다. <Think of me>, <All I ask of you>, <이룰 수 없는 꿈>, <대성당들의 시대> 등 다채로운 뮤지컬 노래를 선보였다. TV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졌던 김소현·손준호 배우는 뮤지컬 작품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 인생


을 '동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듀엣곡을 부르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동행'을 통해 얻는 행복함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이어 <향수>와 <손에 손잡고> 등 익숙한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팔을 흔들고 호응했다. 두 배우는 YWCA의 'Y'를 몸을 맞대 표현하며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소통했다. 김소현은 “힐링을 드리고자 왔는데, 오히려 관객들로부터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Time to say goodbye> 노래를 마지막으로 김소현·손준호의 무대가 끝나고, YWCA 회원들이 뽑은 '동행'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가 화면에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연의 <만남>이 흘러나오며 가수 노사연이 무대에 등장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래로 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그가 등장하자 관객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노사연이 <만남>을 부르자 관객들도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관객들과 함께한 지금이 진정한 동행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최선을 다하며 <넘 그림자>,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사는 게 뭔지>, <사랑>의 무대를 연달아 선보였다. 노사연은 “우리의 모든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마지막 곡으로 '바람'을 부르며 공연을 마쳤다.

1922년 창립 이후 YWCA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힘써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외면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배경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

'YANA콘서트'는 특별히 동행이란 주제로 세상을 향한 YWCA의 따뜻한 시선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했다. 관객과 가수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번 콘서트에 모아진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는 YWCA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 부부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배우 손준호와 사회자를 맡은 주철환, 배우 김소현(왼쪽부터)이 웃고 있다.



관객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가수 노사연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역과 여성, 희망을 잇다

북부지역 회원들이 회원대회 결의문 낭독 후 'With You'운동을 표현하는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YWCA 북부지역위원회는 8월 30일(목) 강릉장로교회 TG홀에서 '지역과 여성, 희망을 잇다'는 주제로 2018 YWCA 북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7개 YWCA(강릉, 동해, 서울, 속초, 원주, 인천, 춘천) 회원들과 연합회 활동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힘내라 여성! 살리자 지역!

북부지역위원장인 조종남 서울YWCA 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했다. 김희숙 강릉YWCA 회장의 기도, 구애심 동해YWCA 회장의 성경봉독, 김태영 원주YWCA 회장의 '하나님의 은혜' 특송에 이어 이철 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YWCA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했다.

회원YWCA 기 입장과 함께 본 순서의 막이 올랐다. 조종남 북부지역위원장이 환영사로 개회식을 선포했다. 조종남 위원장은 "YWCA는 회원이 만들고, 회원이 활동하며, 회원이 이끌어가는 회원의 기관"임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YWCA 회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지역사회 여성들과 함께하며 곳곳에서 희망을 잇고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북부지역 회원대회를 통해 특별히 지역에서의 여성운동 방향을 고민하고, 북부지역 회원들이 앞장서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서 운동실천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YWCA는 우리 사회에서 길잡이가 되는 시민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YWCA 회원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지역 회원들의 다짐을 담은 결의문이 낭독됐다.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고 글로벌사

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성평등문화가 확산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에너지자립 지역사회를 만들 것,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소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참여·나눔·치유의 평화세상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해 'Y 청소년, W 여성, C 생명, A 사람과 함께하는 With You!운동'으로 지역과 여성을 희망으로 잇겠다는 의지를 담은 'I ♥ YWCA' 카드섹션을 선보였다.

성평등문화 확산되는 지역사회 만든다

지역역량 강화교육으로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지역여성운동과 YWCA'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왜 YWCA가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와 더불어 YWCA 지역여성운동 현황과 평가를 설명하고, 분야별 운동방향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청소년과 함께하며 경쟁이 초래하는 죽음의 문화에서 살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입 △탈핵 확산과 탐욕의 의식주 생활 청산으로 생태친화적 일상 추구 △그리스도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성 회복의 중심역할 등을 YWCA 운동방향으로 제안했다.

오후에는 아카펠라그룹 M.T.M의 희망콘서트 '힘내라 여성! 살리자 지역!'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출연진들에게 아카펠라를 배우고, 추임새를 넣어가며 신명나는 공연을 즐겼다.

1시간의 아카펠라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회원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오와 의지를 종이에 적은 뒤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희망을 향해 날리며 이날 회원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종남 북부지역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회원대표들이 회원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카펠라그룹 M.T.M이 희망콘서트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회 임원과 참가자들이 YWCA 회기를 부르고 있다.



대구YWCA가 '난타공연'으로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YWCA 동부지역위원회는 9월 5일(수)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도약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YWCA 동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15개 YWCA(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 회원과 연합회 활동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도약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성장

대구YWCA Y.B찬양팀이 반주를 함께한 가운데 김성이 진주YWCA 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했다. 손혜원 마산YWCA 회장이 고백의 기도, 서정순 울산YWCA 회장이 감사의 기도를, 홍순옥 부산YWCA 회장이 '함께 가는 순례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묵상을 전했다. 이어 오프닝 생각영상이 상영됐다. '여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50가지, 남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50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차별 인식과 관점을 알기 쉽게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15개 회원YWCA 회장과 사무총장이 기를 들고 입장하며 개회식 막이 올랐다. 동부지역위원장인 유영은 대구YWCA 회장이 환영사로 개회를 선포했다. 유영은 위원장은 "여성의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성차별적

인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체로서 성장을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회원대회 의미를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YWCA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기독교운동체"라며 "회원 여러분이 도전하고 함께 전진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여성지도력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동부지역 YWCA 활동영상이 상영됐다. 15개 회원YWCA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YWCA'라는 질문에 재치 있는 답변과 톡톡 튀는 소재로 탈핵, 청소년·청년, 평화·통일, 돌봄, 소비자 등의 활동내용을 잘 표현했다. 이어 15개 회원YWCA 회장과 한영수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 무대로 올라와 '도약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성장'이란 글씨를 쓴 노란우산을 펼치는 회원다짐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행사장 곳곳에서는 대구YWCA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항공과학교육협동조합 '날자' 회원들이 주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

지역역량 강화교육으로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인곽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 '우리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곽 교수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삼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로 부르며 절망하는 현실을 전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곽 교수는 여성의 일상을 바꿀 있는 힘을 지역여성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이 하는 지역정치의 중심에 YWCA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프로그램은 회원YWCA 활동나눔을 위한 장기자랑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시작했다. 난타공연(대구), 댄스(진주, 양산), 개사곡(마산, 사천, 울산), 율동(거제, 창원, 진해), 아코디언 연주(통영), 민요체조(포항), 퍼포먼스(김해), 연주와 합창(부산) 등 다채로운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전점숙 포항YWCA 회장, 돌봄과살림 황은혜 회원, 도우엔 다문화 회원, 채성민 청년 회원이 회원대표로 나와 '동부지역 YWCA 도전.여성 선언문'을 낭독하고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이 서로 Y배지를 달아준 뒤 임옥수 거제YWCA 회장의 기도로 이날 회원대회는 마무리됐다. 



유영은 동부지역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회와 15개 YWCA 회장들이 회원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양산YWCA가 '씨나' 곡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회원대표들이 동부지역 YWCA 도전.여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1988년 9월 15일 강릉YWCA 창립예배에서 박금자 초대회장과 당시 연합회 지방위원회 김숙희 위원장과 이진용 간사(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가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박금자

강릉YWCA 초대회장

서울올림픽 기도회로 탄생한 강릉YWCA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안전한 올림픽을 위한 기도회를 강릉에서 조직하도록 나의 은사였던 무용가 선순자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다. 불교신자였던 선순자 선생님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권사님이다. 은사와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인연으로, 88서울올림픽을 위한 기도회를 펼치게 되었다. 그 기도회 임원들은 발기인이 되어 강릉YWCA를 창립하게 된다.

당시 나는 유치원 원장으로 시간에 쫓겼다. 딸은 재수생,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 시댁과 친정 모두 불교신자였다. 기도해줄 사람이 없었고,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YWCA를 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금식기도를 했다.

기도의 응답은 은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으로

부터 받았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는 응답이었다. 시민운동에 관심도 없었고, YWCA를 알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못했던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로 바뀌었다. 1988년 9월 15일, 55명의 회원과 함께한 창립예배로 강릉YWCA가 오늘의 30주년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였다.

위원회 조직, YWCA 운동의 뿌리

운영하던 유치원 사무실에 책상 1개와 간사 1명, 그리고 이사 15명과 위원 20여명으로 시작한 첫 프로그램은 YWCA 회원교육이었다. 당시 연합회에서 지역을 담당하던 이진용 선생님이 먼 길을 오가며 수고한 보람과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프로그램을 펼치게 되었다. 복음 성가 부르기, 교도소 생일축하 방문, 보육원 방문, 이웃 돕기 일일찾집, 소비자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듬해에는 연합회가 주관한 팔도강산 바자회에 강릉 특산물인 초당두부를 가져가서 전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봄가을 열린 큰장날,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전국 회원들이 도덕성 회복에 한목소리를 냈던 바른삶 실천운동을 비롯해 특별히 어린이 음악경연대회는 강릉YWCA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꾸준한 활동으로 3년 만에 이사, 위원, 모든 회원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전세이지만 회관을 마련했다. 뒤이어 총무 1명과 간사 2명, 이사 25명에 7개 위원회와 58명의 위원을 갖추며 준비회에서 클럽으로, 1992년에는 준회원, 2010년엔 정회원 YWCA로 승격했다.

강릉YWCA는 위원회 조직이 YWCA 운동의 뿌리라고 믿었다. 봄가을마다 이사·위원 훈련을 1박2일간 꾸준히 펼친 노력으로 위원회 활동이 잘 진행되어 감사하다. 이사·위원 교육은 YWCA 목적을 인식하고 각자의 다름을 이해와 친교로 인정하고, 소명을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교육을 위해 언제나 먼 길을 마다않고 와주신 연합회 김은경, 이진용 선생님도 감사하다.

창립 18주년인 2006년 준공한 강릉YWCA회관은 2017년 재건축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강릉YWCA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사과 위원님들,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는 강릉YWCA가 건물이 아니라 YWCA 운동에 예수님이 꼭 함께하는 생명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3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며 강릉YWCA가 출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지난 추억을 되돌아봤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감사했고 행복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고 하셨던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다시금 고백한다. 할렐루야!

창립30주년 기념식 “희망세상 향한 걸음은계속된다”

강릉YWCA는 9월 13일(목) 교동에 자리한 강릉YWCA회관에서 창립3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열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 김한근 강릉시장, 이재안 시부위원장, 강릉YWCA 지도목사인 이철 목사를 비롯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해 강릉YWCA의 30살을 축하했다. 기쁨의 감사예배를 드리고, 강릉YWCA 30주년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살펴보기 기념식을 시작했다. 김희숙 강릉YWCA 회장은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성지도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사랑 공동체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선한 역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박금자 강릉YWCA 명예이사와 양혜진 강릉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가 30년 공로패를 받았다. 그동안 강릉YWCA와 함께 북한어린이 분유돕기에 적극 동참한 중앙감리교회, 교도소 생일잔치 행사에서 떡과 과일을 후원해준 옛날떡집과 정동청과, 어르신 무료식사를 지원한 횡집 팔도강산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에 특별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회원대표로 안경자 강릉YWCA 이사, 김금환 평생회원, 최서현 Y-틴, 우노미나노 회원이 창립30주년 비전을 선포했다. 성경 요한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에 기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YWCA 비전 ‘청·춘·여·찬’을 강릉YWCA 비전으로 추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세상을 열어가길 것을 다짐했다.



강릉YWCA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회관 앞마당에 모였다.



수원YWCA회관에 씽크머니 상설교육장인 금융생활체험교실 '팝핀' 2호가 문을 열었다.

손지민

한국YWCA연합회 청년기자단 4기 대표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팝핀(Pub-FIN : 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 2호 개소식이 9월 15일(토) 오전 10시 수원YWCA에서 열렸다. 씨티재단 후원으로 한국씨티은행과 YWCA가 운영하는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씽크머니 상설교육장인 팝핀은 지난해 8월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에 1호를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설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아 수원YWCA 회장과 함희경 한국YWCA연합회 씽크머니자문위원장, 수원YWCA 씽크머니 강사단과 대학·청년Y, Y-틴 회원 등 45명이 참석했다.

핀테크와 모바일 앱으로 교육

수원YWCA회관 2층, 평생교육을 위한 교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청소년 금융생활체험공간인 팝핀 2호가 들어섰다. 수원YWCA는 9월 15일(토) 팝핀 2호 개소식을 열고, 지역으로서는 첫 금융교육 상설교육장의 탄생을 축하했다.

김성아 수원YWCA 회장은 “급속하게 금융환경이 변하는 시대에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합리적인 금융생활 교육을 위한 정말 필요하다”며 개소 취지를 밝혔다. 2006년부터 지역 내 학교와 기관에 금융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씽크머니를 운영해온 수원YWCA는 팝핀 개설로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교육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함희경 한국YWCA연합회 씽크머니자문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팝핀을 개설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뒤 “수원YWCA가 팝핀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알리는 한편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희경 위원장은 새로운 청소년 금융교육 모델로서 팝핀이 기존의 씽크머니 교육과 다른 점도 설명했다. 팝핀은 대부분 금융교육과 달리 종이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를 활용한다. 신용카드 등 ‘보이지 않는 돈’을 사용하는 실제 금융환경을 교육에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체험형 금융교육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교육방식과 체험학습을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씽크머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미 수원YWCA 환경평화위원회 위원이 직접 태블릿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시

연했다. 참석자들은 아이패드로 QR코드를 찍으면 나오는 씽크머니 문제를 맞춰가면서 모바일게임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금융교육이라는 말에 어려움을 느끼던 청소년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와 저축, 투자, 기부 등을 해보았다.

팝핀에만 있는 '가치' '나눔' '지역성'

경제교육을 위한 모바일게임 속 금융활동은 씽크머니 핵심인 '1E'(Earning 수입)와 '3S'(Saving·Spend·Sharing 저축·소비·나눔)를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자신이 번 돈(Earning)을 모으고(Saving), 쓰고(Spend), 나누어(Sharing) 보면서 금융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소비할지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씽크머니는 금융활동에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포함하여 YWCA 가치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YWCA 가치관을 접목한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건전한 성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씽크머니는 '지역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금융교육과 차이가 있다. 팝핀 2호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 개설해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 것이 그 출발

이다. 지역에는 경제금융 상설교육장이 드물다. 팝핀 2호는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청소년, 청년으로 교육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YWCA는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환경교육과 금융교육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팝핀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미 위원은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지역인 만큼 환경과 접목한 경제교육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윤리적 소비나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탕주의'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가상화폐 열풍' 등 돈의 가치만 강조되는 우려 속에 청소년과 청년의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팝핀은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팝핀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어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씨티재단 후원으로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운영하는 씽크머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청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가 교육을 받는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만 명이 씽크머니 교육을 받았으며 약 2,400여 명의 강사를 양성했다. 



참가자들이 태블릿PC로 씽크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수원YWCA 대학·청년Y와 Y-틴 회원, 씽크머니 강사들이 QR코드와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조선의병들이 오늘날 세상에 묻다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미스터 선샤인>이 재현한 의병들(위)과 1907년 실제 의병들(아래)

는 한국 영화들이나, 재벌집 아들의 눈에 들어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쁜 여자들의 연애담이 주인공과 제목을 바꿔가며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는 드라마 현실을 감안 하건대, 여성이 주인공이며 게다가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주체로서 그려진 <미스터 선샤인>은 새롭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재현된 수많은 여성들이 한결같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거나 남성 주인공들이 대체로 영웅적으로 펼쳐나가는 서사를 보조하기 위한 배경이나 에피소드로

그려질 때 총을 든 여성이 주체가 되어 암울한 시대의 운명을 헤쳐 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귀중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등장하는 여성들은 별거벗겨지거나 시체로 등장하거나 된장녀 등 개념 없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한국 영화 속에서 최근 1천만 관객을 넘긴 여성 주인공 영화는 전지현이 여성독립운동가 안옥운으로 분한 <암살>이 유일했다. <암살>을 통해 우리는 잊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존재를 환기했고, 역사 속에서 소환해낸 그들의 삶을 통해 3.1운동 100년을 맞는 우리 현실과 여성의 존재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이 주인공이며 역사적 주체로 그려진 영화나 드라마는 찾기 어려웠다. 그래

반갑다, '여성' 역사주인공

<미스터 선샤인>의 딱딱한 여운이 쉽게 가지지 않는다. 드라마 내내 주인공 고애신과 유진 초이, 쿠도 히나와 구동매, 고애신의 약혼자 김희성이 펼쳐나가는 사랑이야기도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긴 여운을 만든 가슴 쿡하는 감동의 연원은 따로 있다. 바로 '아무개'로 칭해진 '조선의병'들이었고,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재현된 적 없던 '여성 의병장' 고애신의 절절한 삶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온통 남자 형사들이나 남자 깡패들이 브로맨스를 자랑하며 포스터마저 온통 남자들이로 도배하



드라마 주인공 고애신(왼쪽)과 쿠도 히나.

서 24부작이라는 시공간 아래 펼쳐진 완벽한 여성 주인공의 서사 <미스터 선샤인>이 더욱 반갑다.

'다 그리 사는 삶'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

서구 열강과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강탈을 노리던 구한말, 많은 양반 지배계층이 외세에 빌붙어 새로운 질서에 편승하려 할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이들이 있다. '의병'들이다. 신미양요를 비롯한 열강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다 죽은 민중들과 무너져가는 조선의 앞날을 보며 타협으로 얻는 부귀와 영화를 기꺼이 포기한 양반, 지식인들이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다.

그 의병집단 속에는 사냥꾼 포수, 도공, 가마꾼, 주모 등 양반계층과 외세 모두에게 억압받고 수탈당한 이름 없는 민중들도 있었지만, 양반집 아리따운 '애기씨'도 있었다. 여리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적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는 주인공 고가 애신처럼 말이다.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은 다 그리 살던데..." 드라마는 노비 신분이었다가 미국 시민이 된 남자주인공 유진 초이를 통해 양반 애기씨 애신에게 '의병'의 길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묻고, 고가 애신은 이렇게 답한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중략)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이름도 얼굴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중략)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 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어두운 시대 '다 그리 사는 삶'을 택하지 않은 여성의 존재는 얼마나 값진가. 그들의 선택은 3.1운동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 역사 속에 자주 독립 정신과 민주주의를 새롭게 키워나가지 않았던가. 오늘 우리가 누

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이들의 고뇌와 결단, 뜨거운 삶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미스터 선샤인>에는 두 주인공 외에 저마다 강렬한 사연을 지닌 주인공들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며 한 시대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간에 대해 증언한다. 그들은 저마다 처지와 방법으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매국노의 딸로 일본에 팔려갔지만 호 텔 글로리의 마담으로 일제에 항거한 쿠도 히나, 양반계급 자제로 친일과 항일 사이에 고뇌하다 언론인으로 저항한 김희성, 마지막 소원이 "이리 오너라~" 한번 외쳐보는 것이었던 애신의 몸종들은 모두 한 인간으로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삶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화학자 프레모 레비가 질문한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기계적으로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한 '인간괴물'이라고 증언했다.

<미스터 선샤인>은 한 시대의 삶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뇌한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선택하고 실천한 역사의 주인공들을 생생하게 현재로 소환한 역사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병이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쓰러져간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귀하가 구하려는 이 땅에는 누가 사는 거요? 난민은 살 수 있소? 장애인은 살 수 있소? 성소수자는 살 수 있소?"



YWCA 든든한 지원군, 한자리에 모이다

김예은
부산YWCA 간사

2018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이 부산YWCA 주관으로 9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1박2일간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르피나유스호텔과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 송도에서 진행되었다. 증경회장간 친목도모와 YWCA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구성된 전국증경회장모임은 2010년 제7회 사무회의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자리인 만큼 즐겁고 반가운 인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선배 증경회장이 들어올 때마다 박수와 악수로 맞았다. 올해 모임은 부산YWCA합창단 찬양과 함께한 개회예배, 개회식, 우리들의 이야기(유급종 부산YWCA 증경회장), 사무회의, 부산의 대표 불거리를 산책하는 숲&자연과 숲&문화까지 다양한 순

서로 진행되었다.

사무회의에서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이 새 회장으로,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이 총무·회계로,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이 서기로, 심영희 남양주YWCA 증경회장과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올해까지 회장을 맡은 최숙자 부산YWCA 회장이 새 회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최숙자 회장에게 감사 꽃다발과 뜨거운 포옹을 전했다.

이튿날엔 송도 구름산책로와 해상케이블카에서 드넓은 바다, 푸른 하늘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0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은 강릉YWCA에서 열린다.



증경회장들이 송도 구름산책로(왼쪽)와 누리마루APEC하우스(오른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회 소식

월레아침기도회



월레아침기도회가 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10월 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특송 '민들레의 노래'를 불렀고, 김예식 예심교회 담임 목사가 '사람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설교했다.

2018 YANA콘서트



한국YWCA 후원을 위한 'YANA콘서트'가 10월 16일(화)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34개 회원YWCA 활동가와 회원을 비롯해 후원기업,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철환 아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가수 노사연이 무대에 올랐다. '동행'을 주제로 관계단절로 외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나눴다. 이번 콘서트 수익금은 사회 약자를 지원하는 YWCA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지리산편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인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2018 지리산'이 광주YWCA 주관으로 9월 30일(일)부터 10월 2일(화)까지 지리산과 광주에서 열렸다. 32개 회원YWCA 회원들과 미국, 중국 동포와 탈북민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천왕봉팀과 노고단팀으로 나뉘어 지리산을 등반했다. 평화축



제 공연, 한완상 박사의 강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소심당조아라기념관 방문 등이 이어졌다.

서부지역 회원대회



YWCA 서부지역위원회는 10월 23일(화) 전주바울센터에서 '정의·평화공동체 성평등 실현으로!'라는 주제로 2018 서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로 시작해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 회원대회로 진행됐다. 기수단 입장에 이어 양상민 한국놀이문화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회원한마당 축제를 열었으며, 결의문 낭독과 회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10개 YWCA(광주, 광양, 남원, 목포, 서귀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와 군산직할지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2018 전국증경회장모임



2018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이 부산YWCA 주관으로 9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1박2일 동안 부산 해운대아르피나유스호스텔과 송도 일대에서 열렸다. 회원 YWCA와 연합회 증경회장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 특강, 2019년도 임원선출에 이어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제2차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제2차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동부·서부·중부지역을 대상으로 10월 22일(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10월 24일(수) 서울YWCA강당에서 각각 열렸다. 백소영 강남대 교수가 '기독교여성주의와 성평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Q&A세션에서 백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담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이 '양성평등YES 성평등NO 프레임의 형성과 확산'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진행한 '회원YWCA 성평등운동 과제 설정' 워크숍으로 마무리됐다.

성폭력시설 증견활동가 워크숍



연합회는 10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2박3일간 제주 일대와 서귀포YWCA에서 'YWCA 여성폭력 관련시설 증견활동가 워크숍'을 열었다. 마정윤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이 '내안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택광 경희대 교

수가 '마녀프레임'을 주제로 강의했다. 21명의 참가자들은 애들개 둘레길 코스와 사려니숲길을 걷고, 제주4.3평화공원 등을 방문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



2018년 제2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가 9월 12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인 조현경 시민경제센터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청년기자단 4기 정기모임



한국YWCA 청년기자단 4기 제3차 정기모임이 10월 13일(토)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가 '좋은 뉴스 사진 잘 찍기'를,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가 '취재현장에서 만난 페미니즘'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청년기자단 8명과 멘토, 실무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핵그린 포럼

YWCA를 비롯한 10개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가 9월 28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그리스도인,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포럼을 열었다. 부산장신대 교수인 배현주 WCC(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이 '핵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



문과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방출 반대 기자회견



YWCA를 포함한 11개 환경·시민단체가 10월 8일(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배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견 경청을 요구했다.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2호 개소



핑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2호 개소식이 9월 15일(토) 수원YWCA에서 열렸다. 함희경 연합회 핑크머니 자문위원장, 이종근·조문경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수원 YWCA 김성아 회장, 핑크머니 강사, 대학·청년Y, Y-틴 회

원 등 45명이 참석했다. 수원YWCA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와 금융에 초점을 맞춰 경기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 연구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씨티재단 YWCA 방문



2006년부터 청소년경제교육 핑크머니, 여성청소년 기술교육 프로그램 핑크잡스를 지원하고 있는 씨티재단이 현장 모니터링과 협력의의를 위해 10월 22일(월) 한국YWCA를 방문했다. 함희경 연합회 핑크머니 자문위원장, 한미미 실행위원(세계YWCA 부회장), 유성희 사무총장과 담당자들은 한국YWCA 역사와 운동, 핑크머니·핑크잡스 사업현황을 설명했다. 씨티재단에서 도로시 슈테엠케(Dorothy Stuehmke), 이빈 추(Ybin Chu), 테스비치 리차드(Tesvich Richard)와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자원활동가 교육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자원활동가 초청교육이 9월 30일(일)부터 10월 5일(금)까지 5박6일간 연합회와 수원 YWCA에서 진행됐다. 허미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장을 비롯한 자원활동가 7명은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지리산편 참석을 비롯해 한국YWCA 노인복지시설 은학의 집을 탐방하고, 치매예방강사 교육과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미국감리교(UMC)가 후원했다.

연합회 소식

故 고의순 위원 2주기 추모모임



故 고의순 은학의 집 운영위원의 2주기 추모모임이 10월 10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가족과 지인, 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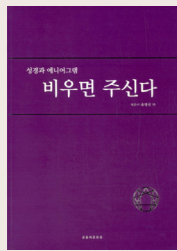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추억했다. 올해는 고인과 친분을 쌓은 미바에 리스크 전 일본YWCA 회장과 일본 거주 지인을 비롯해 고의순나눔장학금을 받는 남원 YWCA에서 참석해 뜻을 더했다. 고인은 2016년 전국회 원대회와 한일YWCA협의회 통역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린 고의순나눔장학금을 조성해 YWCA에 전달하고 있다.

유성희 사무총장 재신임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신임이 10월 4일(목)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성희 사무총장은 2021년까지 차기 임기 3년 동안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간 안내

비우면 주신다 윤명선 외



공동체문화원 / 25,000원

이웃과 함께 성경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공동체문화원이 에니어그램을 통한 영성수련 가이드를 <비우면 주신다>에 담았다. 에니어그램을 통해 성격의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단점인 걱정과 유혹, 고착의 문제를 이해하고 회개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인사

사임	윤수정 실행위원 2018.8.1 오현숙 회원(지역협력관) 2018.9.20
보직변경	송록희 부장(지역운동국 회원Y협력지원) 2018.9.21 박미선 간사(법인사무국 회계) 2018.10.1
휴직	한송이 간사(법인사무국) 2018.10.1
채용	이주영 간사(법인사무국) 2018.10.1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 9. 1~9.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운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솔,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명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찬형, 이천진, 이현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차경애, 채정희, 최수남,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785,000
개인기부	임국이	3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10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탁회	100,000
합계		2,015,00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 9. 1~9.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청주YWCA	50,000
개인	※ 2017년 약정자 중 2018년도 9월분 완납자 명단 권익숙, 정동신, 신현주, 이애선, 차경희	50,000
합계		100,000

회원YWCA 소식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고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고양YWCA는 10월 1일(월)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YWCA 시민모니터링단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고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임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위원이 고양시 성인지예산 총괄분석 결과를,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정아 고양과여성민우회 대표, 장상화 고양시의원, 장미진 안산YWCA 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성인지예산 정착과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안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남양주YWCA가 운영하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귀포YWCA를 찾아 제주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주 지리와 환경의 가치를 살린 자연생태공원이자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탐나라공화국을 탐방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난 실무자들에게 쉬과 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초등민들레환경학교

부천YWCA는 9월 6일(목)부터 10월 1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저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초등민들레환경학교'를 진행했다. 물의 나라, 꽃의 나라, 열매 나라, 잠자리 나라, 잎의 나라 등으로 나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푸른수목원, 원천공원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생태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왔다.

성남YWCA

김자혜 간사

생명사랑 Y-큰장날



성남YWCA는 9월 18일(화) 이사, 위원, 회원, 실무자, 봉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장터 '생명사랑 Y-큰장날'을 열었다. 햇곡식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 건어물과 명절 선물 등을 준비해 풍성한 추석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제3회 '차 없는 도로'



회원YWCA 소식

수원YWCA는 9월 15일(토) 회관 앞 도로에서 제3회 '차 없는 도로' 행사를 열었다. 양방향 도로를 비우고 시민 참여 베틀시장, 아나바다 장터, 환경보전 실천 캠페인, 재활용 캠페인, 천연제습제 만들기, 흙텃밭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수원YWCA는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차 없는 도로'를 1년에 2회씩 열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여성특화 채용박람회



안산YWCA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11일(목) 센터 4층에서 여성특화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수연 한국위킴연구소장이 '스트레스 해소법과 행복한 나 찾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펼쳤고, 10개 업체가 참여해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취업상담, 창업상담, 바리스타 직종 홍보, 3D 체험, 로봇코딩 체험, 드론 체험 등 부대행사에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여성진로페스티벌



안양YWCA는 10월 11일(목) 롯데백화점 안양점 샷레데광장에서 제23회 여성진로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취·창업지원관, 현장채용관, 유망직종관, 홍보관, 유망직종 특강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유망 전문직종 정보제공과 취·창업 지원으로 여성고용 창출기회를 제공했다.

여성진로페스티벌은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안양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과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YWCA

박성희 간사

생명사랑 나눔장터



의정부YWCA는 10월 17일(수) 회관 앞에서 '생명사랑 나눔장터'를 열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기증품을 나누는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지역농산물, 회원들이 만든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의류, 잡화, 도서, 완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부대행사로 유·아동매체 모니터링 결과를 홍보하는 성평등 캠페인을 펼쳤고, 장터 기증자와 구매자들이 참여하는 다투 던지기 이벤트도 진행했다. 회원, 주민들이 나눔장터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제일고등학교 '애들아 밥먹자'



거제YWCA는 10월 5일(금) 제일고등학교에서 2018년 '애들아 밥먹자'를 진행했다.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컵밥 1,000여개를 준비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 줄 계획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부득이 반별로 전달했

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수능을 앞둔 3학년 1반을 찾아 직접 응원하고, 인근 거제제일중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주먹밥을 제공했다. 청소년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청소년 환경학교



김해YWCA는 9월 8일(토)부터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환경학교를 열었다. 지역 에너지에 관심 많은 청소년 20명이 참여했으며 소양교육, 캠페인 준비를 거쳐 9월 22일(토)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김해문화의전당 에두름마당에서 탈핵캠페인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17일(수)에는 봉명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를 열었다. 청소년들에게 탈핵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추석맞이 큰장날



대구YWCA는 9월 14일(금) 회관에서 추석맞이 '큰장날'을 열었다. 주민들에게 착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착한 소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큰장날'에서는 우리밀 등 안전한 로컬푸드와 다양한 지역특산물, EM제품을 판매했다. 해마다 열리는 대구YWCA '큰장날'은 이웃과 지역

이 함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실천의 장이 되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차.고.한' 가족요리교실



마산YWCA는 9월 15일(토)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은(차.고.한) Family'를 열었다. 창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15가족이 참여해 가정내 양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족요리교실을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불고기브리토와 오코노미야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평등한 가족문화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남북명랑운동회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는 10월 6일(토) 동래구 부전교회 실내체육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제6회 남북주민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민 80여명과 시민 50여명이 청백 팀으로 나눠 운동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남북명랑운동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학교폭력 멈춰' 합동 캠페인

사천YWCA는 9월 19일(수) 수양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멈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인식을 높여 학교폭력 사전예방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환경지기단 건강한 먹거리 체험



울산YWCA는 9월 15일(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제19기 환경지기단원 4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환경지기단은 울주군 언양읍에 자리잡은 다개떡방을 방문해 대표적인 우리 음식인 떡과 유과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했다. 단호박 송편과 설기로 계절 떡을 만들어본 환경지기단은 환경을 지켜야 건강한 먹거리도 가능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양산YWCA 정은경 간사

실무자 워크숍 '여행(女幸)가즈아~!'

양산YWCA는 9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2박3일간 '자유와 평화를 만난 우아한 섬포 여행(女幸)가즈아~!'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도에서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째 날은 평화의 오름을 주제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올레길 7코스를 걷고 제주전



쟁역사평화박물관을 방문했다. 셋째 날은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제주탐나라공화국을 찾아 강우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체험을 통한 쉽고 충진의 기회가 되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다문화가정과 함께한 '아시아의 추석이야기'



진주YWCA는 9월 11일(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2018 아시아의 추석이야기를 열었다. 진주에 거주하는 아시아 13개 지역 다문화가정 80여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체험부스(아시아 전통놀이, 아시아 인사말 배우기, 아시아의 퀴즈, 패션 of 아시아, 多문화 다함께 다수다, 아시안 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추석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명절풍경을 체험하며 이주민들의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진해YWCA 김자영 간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소비자교육



진해YWCA는 9월 11일(화) 주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실습을 진행했다. 농림축산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쇠고기야채전골을 만들어보고 시식하면서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조리법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주민들에게 지역농산물 종류와 특성을 잘 알리고, 적극적인 조리법 보급으로 지역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청년 공정여행



창원YWCA는 10월 3일(수) 대학·청년YWCA 동아리 'Y-디어'가 주관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진주중앙시장에서 진행했다. 9명의 청년들은 진주중앙시장에 조성된 청년몰과 청년푸드존을 찾아 청년사장들에게 창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미래 청년사업가로서 꿈을 키웠다. 이번 행사는 한국YWCA연합회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슬기로운 청년생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결혼이민여성 민들레모임



포항YWCA는 9월 19일(수)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하는 민들레모임을 진행했다.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민들레모임에는 베트남,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8명이 참석

해 이민여성모임 활성화 방안과 참여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비닐 전용봉투를 나눠주고, 1회용 비닐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된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은 매년 분기별로 열리고 있으며,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어르신 소비자교육



통영YWCA는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9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4회에 걸쳐 도남사회복지관에서 2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 피해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피해사례,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기간, 내용증명 작성법 등을 알려주고 소비자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비주체로서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이웃사랑 민들레나눔장터



강릉YWCA는 10월 12(금)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이웃사랑 민들레나눔장터를 열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올해 추수한 농산품, 겨울준비를 위한 공산품, 각 위원회에

회원YWCA 소식

서 직접 준비한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번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반찬나눔, 다문화가정과 청소년 장학금을 마련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동해YWCA

허순희 간사

노인소비자 교육



동해YWCA는 10월 11일(목)과 23일(화) 목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관 물품판매 형태와 약물 오·남용 실태, 물품 구매 후 반품방법 등을 설명했다.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홈커밍데이 '결혼이야기'



서울YWCA는 창립 96주년 기념행사로 홈커밍데이 '결혼이야기'를 9월 13일(목) 대강당에서 열었다. '그녀와 그의 이야기, 서울YWCA에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홈커밍데이는 서울YWCA 강당에서 결혼한 분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이 참석해 추억을 나눴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서울YWCA 강당은 행사장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1970~80년대는 현대식 결혼식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99년 새롭게 지어진 지금 회관도 수많은 부부의 첫 출발을 함께해왔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회원의 날



속초YWCA는 9월 18일(화) 회원의 날 행사로 일일차집&바자회를 이디야커피 장사점에서 열었다. 바자회는 실내와 외부 테라스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68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은 속초YWCA 재정확보와 함께 평양YWCA 재건 지원, 북한어린이돕기, 북한여성 생리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자연요리' 회원특강



춘천YWCA는 10월 10일(수) 2층 조리실에서 무료 회원특강으로 자연요리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염된 환경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에 많이 노출된 현대인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에서 얻는 재료로 세 가지 만두를 만들어 시식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평화연극 시민과 만나다

인천YWCA는 '평화지킴이가 만드는 평화연극, 시민과 만나다!' 연극반의 창작극 <그, 날>을 10월 9일(화) 구월1동



성당과 10월 21일(일) 학산소극장에서 잇따라 공연했다. '평화지킴이가 만드는 평화연극, 시민과 만나다!'는 인천 시민이 주도하는 통일의 미래상 확립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YWCA가 함께 운영하는 시민극단이다. 인천YWCA는 평화통일 연극관람을 원하는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그, 날>을 추가 공연할 예정이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행복을 여는 집' 소장 퇴임식



광양YWCA는 9월 28일(금) 새마을금고 3층에서 가정폭력피해쉼터인 '행복을 여는 집' 차숙희 소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퇴임예배로 시작한 이날 퇴임식에는 김양임 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본부, 부속시설 활동가들이 참석해 10년간 '행복을 여는 집' 운영을 위해 고생한 차숙희 소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의류분쟁조정위원회 34년 사례집 편찬

광주지역 의류관련 피해예방과 분쟁조정에 힘쓴 광주YWCA 의류분쟁조정위원회가 34주년을 맞아 그동안 활동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펴냈다. 광주YWCA는 광주시와 함께 9월 11일(화) 6층 강당에서 의류분쟁조정위원, 관계



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류분쟁조정위원회 34년 사례집' 편찬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사례집이 광주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로 쓰이길 기대한다.

남원YWCA

장신화 간사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남원YWCA는 9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남원하늘중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에서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며, 근절되어야 할 인권침해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한 불법촬영과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도 범죄임을 인지하고 폭력이 발생하면 상담소 등 관계기관 지원요청 방법을 안내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추석바자회



목포YWCA는 9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회관에서 시민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바자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랜드 의류와 패션잡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건어물, EM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판매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는 시간도 되었다. 이번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사회단체를 돕고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장학금 조성에 쓰인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실무자연수 '잠깐의 멈춤, 함께 더 멀리'



서귀포YWCA는 9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2박3일간 부산 일대에서 실무자연수를 진행했다. '잠깐의 멈춤, 함께 더 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예배, 특강, 여성친화도시 시설견학, 부산YWCA와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관방문으로 이뤄져 실무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순천YWCA

김정민 부장

추석맞이 큰장날



순천YWCA는 9월 11일(수)부터 12(목)까지 추석맞이 큰장날을 열었다. 이번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많은 분

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YWCA 회관이 아닌 외부장소(순천소방서 옆 옛 별고을)를 대관해 큰장날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각종 선물세트, 건어물, 견과류, 젓갈류, 차, EM 등 먹거리를 판매했으며 200명의 주민들이 방문했다. 특히 김부각을 비롯해 이사와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돈가스, 연잎밥 등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수익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운동기금으로 사용된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락(락)페스티벌'



여수YWCA는 10월 13일(토) 학동 거북선공원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락(락)페스티벌'을 열었다. 댄스, 랩, 환경, 봉사, 공예, 창작, 진로 등 30여개 여수지역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해 공연과 부스를 운영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축제의 장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여성네트워크포럼 소그룹 회의



익산YWCA 익산여성네트워크 포럼단은 9월 20일(목) 강당에서 여성주의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 등을 주제로 본인 토의를 했다. 참가자

들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북한이탈주민화합 한마당



전주YWCA 전북하나센터는 9월 29일(토) 전주아름다운컨벤션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북한이탈주민화합 한마당'을 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음식을 나누고,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는 염원을 담아 통일 비빔밥을 함께 비비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제주YWCA

최지운 간사

등근세상 만들기 청소년캠프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9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2박3일간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주최한 취약계층 청소년성장지원 프로그램인 '2018 등근세상 만들기 2차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는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는 청소년 중 22명이 참여했다. 천체투영 교육과 천체관측, 우주착륙선 설계, 품

로켓 제작과 발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정보를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로컬푸드 농장체험 교실



논산YWCA는 10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초등학교 75명이 농장에서 고구마를 캐어 경단을 만들어보는 로컬푸드 농장체험 교실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농가와 요리체험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반(反)GMO(유전자변형식품)의 중요성을 느꼈다. 지난 5월부터 환경운동과 바른 먹거리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 개선교육 및 농장체험 교실에는 초·중·고 11개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50명이 참여했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Y-큰장날



대전YWCA는 추석을 맞아 9월 18일(화) 주민들과 함께하는 Y-큰장날을 열었다. 건강한 생명사랑,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열고 있는 Y-큰장날은 추석 선물용품, 수제송편, 과일 등 다양한 물품판매와 주민이 참여하는

회원YWCA 소식

아나바다 운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주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이웃끼리 나누는 '행복나팔 아나바다 장터'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착한 소비생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문화다양성 교육



세종YWCA는 9월 20일(목) 회관에서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고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가.나.다'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는 강의와 나의 다양성을 찾고 타인과의 다양성을 생각해보는 문화예술 결합형 워크숍으로 이뤄졌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 개관 10주년 행사



제천YWCA가 운영하는 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는 10월 2일(화) 매포읍 매화공원에서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역 인사와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떡케이크

커팅식, 풍선 날리기, 어르신 작품전시회가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각설이 공연, 국악공연을 비롯해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우쿨렐레 연주, 편지낭독, 시낭독, 에어로빅 댄스, 합창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협약



청주YWCA는 9월 11일(화) 소망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업체인 부강이엔에스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희망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YWCA는 안전검사를 거쳐 회관 옥상에 40kW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은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펀드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수안보상록호텔과 업무협약



충주YWCA와 수안보상록호텔은 9월 11일(화) 상호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YWCA 회원과 임·직원 가족은 수안보상록호텔 상품이나 부대시설을 쓸 때 공무원 회원에 준하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YWCA는 상록호텔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일시 2018. 12. 5 (수)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남산문학의집

대상 대학생·일반(개인·단체 가능)	기간 서류접수 2018. 9. 21(금) ~ 11. 9(금) 예선결과 발표 2018. 11. 23(금)(개별통보) 본선·시상식 2018. 12. 5(수) 오전 10시 ~ 오후 1시
주제 4차산업 시대의 금융·경제교육 기본소득 시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경제정의 시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한반도평화 시대의 금융·경제교육 성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에너지전환시대의 금융·경제교육 문화예술을 활용한 금융·경제교육 노인세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청년세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시상 개인부문 최우수 1팀 (100만원과 상패), 우수 2팀 (50만원과 상패) 단체부문 최우수 1팀 (150만원과 상패), 우수 1팀 (100만원과 상패)
	접수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강의 PPT(강의 시연 동영상을 반드시 PPT에 포함)와 함께 이메일 제출
	문의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팀 전화 02-774-9706 이메일 jiny030963@nate.com (우 04538)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2층